

200년전 청계천의 개수공사

우 호 섭* · 김 혜 순**

지금은 청계천(淸溪川)은 콘크리트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지만, 원래 서울의 중앙부 종로구와 중구를 가르는 개울이었다. 서울 분지 주변의 인왕산, 북악산, 남산 등에서 발원한 개울들이 모여 東流하다가 북한산에서 내려 오는 정릉천, 성북천을 끌어들이면서 왕십리박 살곶이다리에서 중랑천과 만난다. 본래 이름은 개천(開川)으로, 길이는 한 10km 정도이며 넓은 곳은 100m 정도이다. 이 하천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하천과는 달리 西出東流한다 하여 예로부터 명당수로 여겼다고 한다.

이 하천은 조선조 이성계가 한양에 도읍을 정했을 때에는 실개천으로, 장마철에는 주변일대가 침수되고 평시에는 오수가 괴어서 불결하였다 한다¹⁾. 이것을 태종때 처음으로 개거공사(開渠工事)를 하여 '개천을 치었고', 그후 영조때 대대적으로 준설, 兩岸石築, 유로변경 등 하천개수사업을 하여 비로서 하천흐름이 직선화되고 鐘路와 평행선이 되었다 한다. 그후 순조, 고종 때에도 준설공사가 계속되었고, 일제시에도 근대적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하천공사가 실시되어 이 때 비로서 청계천이라 개칭되었다 한다. 해방후에도 계속 유지되어 오다가 1958년에 복개공사가 시작되어 지금은 우리의 시야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

그런데 200년전 영조때 청계천 개수공사에 관한 귀중한 자료가 최근에 발굴되어 신문에 소개되었다²⁾. 화제의 책자는 준천계첩(濬川稽帖)이라는 이름

으로 미국 버클리대 동아시아 도서관 귀중본실에 소장된 것이다. 여기서 준(濬)은 '개천칠 준'으로 개울에서 물이 잘빠지도록 준설작업을 한다는 의미이다. 이 책자는 조선조 영조 말 경신년(1760년) 4월에 청계천 준설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책자로서, 영조가 친필로 신하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내용의 글과 더불어 공사에 동원된 인력의 자세한 내용, 그리고 4점의 채색목판 그림이 수록되어 있다. 발문(跋文)은 당시의 호조판서인 홍봉한(洪鳳漢)이 썼다.

그 당시 청계천은 京都川으로 불리어졌다. 준설작업을 하게된 동기는 개천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백성들의 걱정이 더해지자 준설 자체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백성들의 편안함을 살피고, 가뭄이나 장마 때를 대비하여 작업을 하기로 했던 것 같다.

기왕 일을 함에는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준설하기 전이나 다름 바가 없으므로 대단한 각오로 임하였다고 한다. 백성들도 다투어 참가하길 원하였고 날씨 또한 종일토록 비가 온 날이 없었다고 하니 작업의 순조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백년을 미루어 오던 일을 하루 아침에 이루었으니 백성들의 노고에 대한 임금님의 근심과 궁구(窮寇)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에 왕은 친히 東門에 나아가 백성들이 일하는 것을 지켜 보시고 음식을 보내 주셨으며, 모화관(慕華館)에서는 금원시재(禁苑試才)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실장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실 연구원

를 열어 활쏘기 등의 재주를 겨루게 하였고, 신하들에게 명하여 감독한 사람들을 모아 연용대(鍊戎臺)에서 위로연을 베풀게 하기도 하였다.

영조의 이러한 뜻과 친필 4언 문장을 기리기 위해서 임금이 연회를 베푸는 장면, 백성들이 일하는 모습을 직접 돌아보는 장면, 활쏘기 겨루기 장면 등을 그림으로 그렸고 임금의 친필 4언 문장과 함께 인쇄하여 이 책자를 만들었다. 왕은 이 책자를 신하들에게 한 권씩 보관하게 하였다고 한다.

또한 책 말미에는 준설작업에 임한 3공(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하 모든 벼슬아치들과 군인들의 이름이 쓰여 있으며 工人, 匠人 등과 그외 일반백성들을 합하여 모두 21만 5천 3백 80여명이 동원되었다는 것 등이 쓰여 있다(사진 1 참조).

여기에 실린 준설하는 장면의 그림을 보면 5개의 아치 모양이 있는 다리(五間水橋?) 위에서 임금이 내려다 보고 있고, 개울바닥에 3명이 한 조각 된 사람들이 끈으로 묶은 삼을 2명은 잡아 당기고 1명은 삼을 푸는 모습이 보이며, 쟁기질하듯이 소가 앞에서 끌면서 하천바닥을 긁어 내는 모습 등도 보인다(사진 2 참조). 다리에서 개울바닥으로 내려 갈 수 있는 계단이 있고 주변에는 버드나무 등의 나무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 가운데 정자도 보인다.

혹설에는 이때부터 개울의 흐름이 뚫렸다고 하여 청개천(淸開川)이라고 불렀다고도 한다³⁾.

여기서 우리가 음미해 볼 것은 200년전 청계천 주변 모습이다. 이 그림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 시대의 우리 하천은 비록 도시 한가운대를 흘렀어도 맑은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정자가 있고, 우아한 다리도 있었다. 그림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물 속에는 각종 물고기와 가재들이 떼지어 다녔을 것이다. 지금의 사라진 청계천을 생각하면 우리의 주변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아무리 도시화라 하지만 우리 생활주변의 자연이 영원히 사라지고 수양버들과 정자 대신 콘크리트 숲과 차량으로만 가득찬 것이 피할 수 없는 개발의 소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씁쓸하다. 이제부터는 삶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의 주변을 돌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국민소득도 만불이 다되고 있다. 청계천은 영원히 없어졌지만 아직 우리 주변에는 되살릴 수 있는 개울과 강이 많다. 그들을 되살렸으면 한다.

이 글은 서울학연구소(소장 안 두순, 서울 시립대 교수)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1) 세계대백과사전, 학원출판공, 1993
2) 한국일보, 1995.4.26일자
3) 김경보/이한익 공저, 穴, 도서출판 연봉, pp.334-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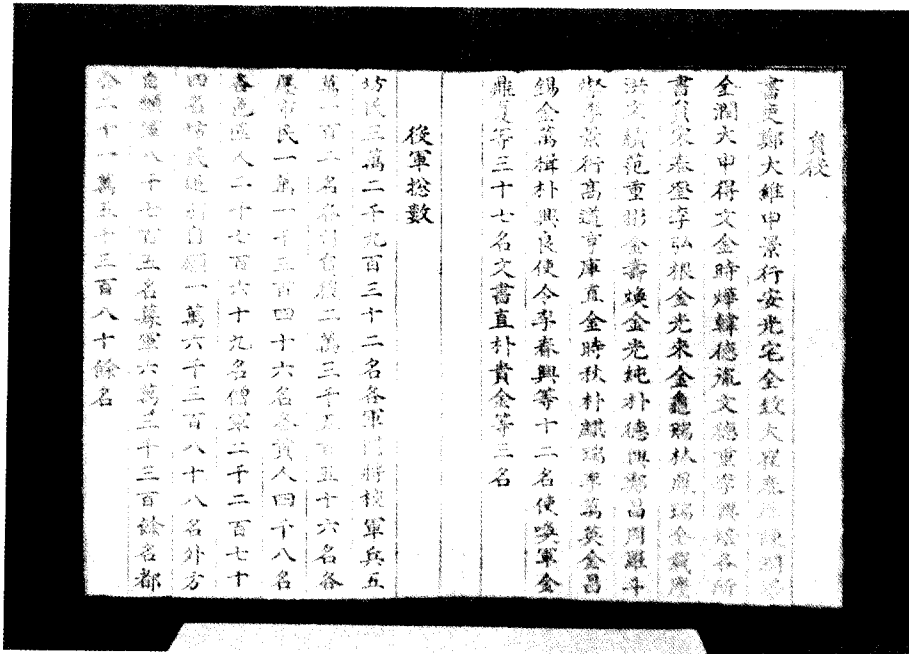


사진 1. 준천계첩(溶川稽帖)의 한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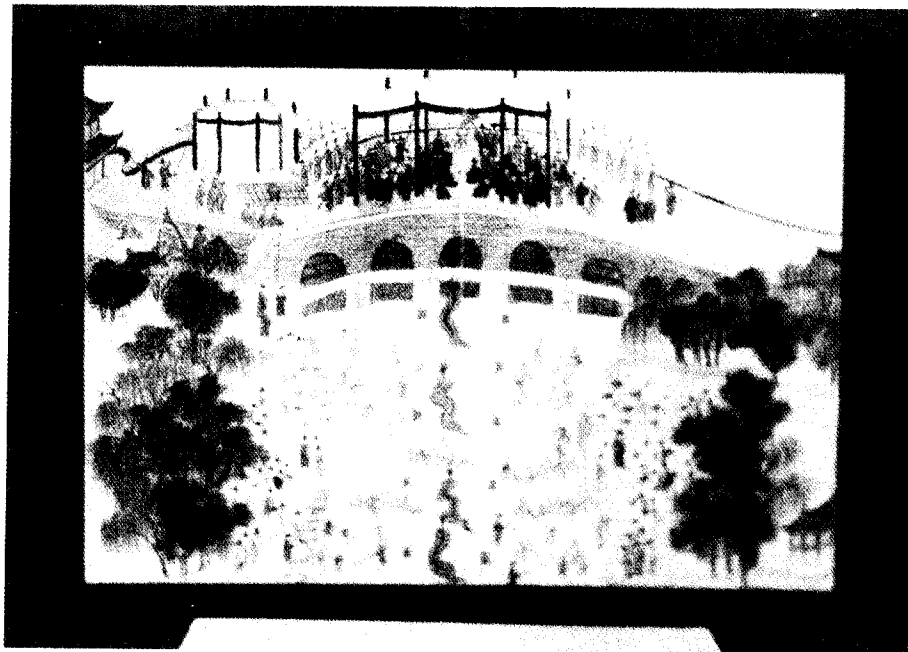


사진 2. 준천계첩 내의 청계천(그 당시는 京都川) 준설 그림